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6차 회의 참석

이길용 의장이 7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하고 광역의회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의 발굴 추진 방향과 효율적인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길용 의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4개 도시 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고양시의회, 방역요원 격려물품 전달식 참석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7월 28일 덕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고양시학원연합회(회장 이재범)가 준비한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길용 의장과 이흥규 부의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 김수환 의원, 고양시학원연합회 이재범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바이러스 및 폭염과 전염을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 요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양시학원연합회에서 준비한 쿨조끼 30벌을 보건소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방역의 중심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상식

**가을철 야외활동 주의보
설치류매개 감염병**

설치류는 220속 약 1,800종으로 포유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극을 제외한 세계 각지에 분포하여 사람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설치류매개 감염병은 언제든지 인간 사회에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고,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감염병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다.

출처: 질병관리청

설치류매개 감염병이란?

등줄쥐, 집쥐 등 설치류에 의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전파 방식에 따라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두 가지로 나뉜다. 사람이 쥐에 직접 물리거나, 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료품 등을 섭취할 때 병원체의 직접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매년 9~11월이면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활동으로 발생이 증가한다.

대표적인 설치류매개 감염병 1. 신증후군출혈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분변, 오줌, 타액 등으로 배출된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 한타바이러스: 설치류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로,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과 페중후군(HPS)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

증상: 발열, 출혈, 소변량 감소, 근육통, 오한, 두통

대표적인 설치류매개 감염병 2.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 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난 부위를 통해 전파된다.

증상: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설사, 발진

위험요인

오염된 눈·발에서 작업, 웅덩이·개울에서 오염된 물과 접촉, 동물과 접촉, 피부 상처가 있는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 따라서 농부, 광부, 어부, 상하수도 작업자, 수의사 및 동물사육사, 도축장 작업자, 낙농업자, 군인 등의 직군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치류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수칙

1. 쥐의 배설물과 접촉 피하기
2. 야외활동 후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3.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농작업·야외활동 후 발열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진료받기

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

1.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
2.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3. 수해복구 작업 후 발열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진료받기